

## 제2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말씀 묵상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다름’입니다. 시험 자체가 기뻐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가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1. ( )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종 (헬 둘로스)’이라는 말은 ‘주인을 섬기며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자유와 소망이 없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야고보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같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신명기 9:27)

---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을 삼으셨나이다”**

(열왕기상 8:53)

---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1)

---

---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서 1:7)

---

---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2-3)

---

---

→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9-10)

---

---

→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 2. ( )

야고보서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2)

---

→ ‘여러 가지 시험’과 ‘기쁨’이라는 정서는 매치가 잘 되지 않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1) ( )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선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잘 되는 것에서 기뻐합니다. 사업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등등 잘될 때 기뻐합니다. 잘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잘될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 ‘잘 됨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3서 1:2-4)

---

→ 요한 사도의 기쁨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될 때 기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된다는 것이 혹시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하는 것뿐이라면,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데, 예배는 잘 안드리고, 돈은 잘 버는데 하나님께 헌금할 줄 모르는 데도 기뻐한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될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되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이 잘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 되는 것’만은 기쁨일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고난’ 또는 ‘시험’으로 보이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2) ( )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2)

---

이것은 야고보서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항상 기뻐하라는 말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를 버릴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뒤흔들라’고 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22-23)

---

### 3) ( )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이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는데도 기뻐 뛰놀 수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기쁨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기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22-23)

---

→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곧 ‘하늘의 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과 비례하여 ‘하늘의 상’이 커지기에 그 고난은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보고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2-4)

---

→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를 온전히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즉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 곧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_\_\_\_\_)

성경에서는 ‘인내’ 또는 ‘오래 참음’의 가치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10-11)

---

---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13-15)

---

---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36)

### 3. ( )으로 구하라

온전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의 두 번째 제안은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 1) 기도: ( )에 기초한다.

기도는 ‘신앙’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이해가 곧 그 종교의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

→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7-11)

→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온전함이나 ‘기도하는 내용의 필요’나 ‘기도하는 이의 간절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관계와 신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6-7)

---

---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도 없습니다.

2) 의심: (\_\_\_\_\_)

야고보서는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8)

---

---

→ 두 마음이란, ‘두 주인’ 즉 두 가지 대상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

---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21)**

---

---

믿음의 사람들도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113)**

---

---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제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8)**

---

---

##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